

#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 Effect of Family Flexibility on the Idea of Adolescents Suicide

#### -The Senior Year of High school Boys-

서신자, 정민숙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hin-Ja Seo(sinjaseo@hanmail.net), Min-Suk Jung(welfarej@nambu.ac.kr)

#### 요약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0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통계처리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은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AMOS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신념체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타났다. 또한, 신념체계는 의사소통을 매개로한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주었다. 이에 가족 간의 화목을 강조한다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고가 절감되기 때문에 가족의 신념을 높이고,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가족탄력성 | 청소년 | 자살생각 |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youth suicide. The subject was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boys in Gwang-ju, 308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s of a study, we used the statistical processing technique SPSS, to perform verification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AMOS analysis was performed for hypothesis test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belief systems which was sub-variables of family resiliency affect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influence on the idea of adolescents suicide. In addition, the belief system has an indirect impact on the communication mediated suicidal thought. Thus, If we emphasize the harmony between family, suicidal thought of adolescent will be reduced. So we proposed the way to increase the belief of the family, and ways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 keyword : | Family Resilience | Adolescents | Thoughts of Suicide |

## I. 서론

21세기에 들어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회복할 수 없었던 신체적 질병이 많이 정복되어 인간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자살 빈도는 해마다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자살

사이트를 통한 집단자살, 동반자살, 유명인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빈부의 양극화 심화, 집단 따돌림, 과도한 스트레스, 외로움이나 소외 등 고통스런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법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살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자살 전문성이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로 주변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외부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박감과 감정 기복이 많고 부모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는 시기이다[31]. 또한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성인처럼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주기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로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특별히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19].

통계청(2011)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 중 학교성적(35.1%)과 가정불화(22.1%), 친구갈등(13.5%)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6], 청소년통계조사(2012)에서도 청소년의 8.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그동안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체계 측면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가족체계 측면의 연구는 가족 내 학대, 의사소통, 자존감, 부정적 정서 측면, 사회체계 측면에서는 학업과 진로, 친구나 교사, 사회적지지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를 언급할 수 있으며[51], 그중 청소년의 가족체계는 자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58], 그 요인 중 가족혼란과 같은 부모-자녀의 부정적 관계 및 갈등은 청소년 자살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47][63][53].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개인, 가족, 사회체계 측면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가족체계 측

면에서는 가족 내 학대,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정서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가족체계 연구는 미흡하다. 이처럼 최근에는 가족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중심의 관점에서 강점중심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가족 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가족 내에 발생한 문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족지원의 개입방향이 변화하고 있다[37]. 이에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연구모형을 가족탄력성이라고 볼 때 이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sh의 모델을 바탕으로 가족탄력성의 세 가지 구성요인(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이 자살생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살생각

자살(suicide)은 생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며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13]. 또한 스스로를 파괴하는 시도 외에 복수를 표현하는 노력이 결합된 소망이며[23][49],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보복 심리로 나타난다[30][50]. Baumeister(1990)는 개인의 높은 기대수준에 비해 자신의 현실적인 상태가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괴리를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비난을 하고, 고통스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인지적 몰락 상태가 유발되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자기 파괴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23].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에 의하면 취약성이 높은 개인은 어떤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적어서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취약한 요인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4][33].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인지적인 숙지에 의한 것보다 정서적, 감정적 동요에 의한 일시적인 충동감, 분노감, 자기조절능력 저하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7][29]. 특히 청소년은 인생의 주기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로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20][36], 학력 중심의 사회 문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열풍은 청소년에게 입시 스트레스와 성과주의에 대한 압력으로 다가와 좌절, 반항, 우울증, 흡연, 음주, 약물남용, 마약복용 등 일탈행동과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24].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은 청소년 자살은 실제 죽으려는 의도보다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 죽음으로 이르지 않고 시도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1]. 자살시도에 앞서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데, Beck, Kovace, Weissman(1979)은 자살생각이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생각이며[32], 자살행동을 자살생각, 기도, 위협, 시도, 완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으며, 자살생각은 자살 시도, 자살행동보다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였다[28]. 또한 정여주·정영숙(2007)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라 정의하였다[39].

자살생각이 청소년에게 비교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Potres & Sandhu(2002)는 자살생각을 가진 모든 청소년이 실제로 자살 또는 자살시도를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살생각은 더 심각한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17].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7][40].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가장 많은 시기로 파악된다[36].

자살생각에 대한 단계를 보면, Beck et al(1979)은 자살생각을 기점으로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으며[7], White(1989)는 자살하기 위한 바람, 상상, 계획이나 생각으로 발전하고[32], 송인한·권세원·정은혜(2011)는 자살생각을 가볍게 한 경우에도 이후에 극단적인 자살생각, 자살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26].

## 2.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은 개인탄력성(individual resilience)이론과 함께 등장하였다[38]. 탄력성(resilience)은 탄성, 회복력, 복원력 등을 뜻하는 말로서, 역경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내적 및 외적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하는 능력이다[10]. Luthar, Cicchetti & Becker(2000)에 의하면 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15].

가족탄력성은 개인탄력성의 개념이 가족에 적용된 것이며, 강점관점이 가족탄력성의 주요 관점으로 제기되면서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적인 가족의 자질이나 가족의 적응적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가족스트레스와 강점관점에 근거한 가족의 선행연구 안에서 탄력적인 가족에 대한 연구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5][51]. 또한 스트레스이론과 적응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족탄력성은 주요한 역경에 노출된 가족에게 있어서 적응 과정을 강조하는 스트레스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14][53], 스트레스이론은 1990년대 후반으로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족이 스트레스와 위기에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식을 사용하여 협상, 생존 가능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쉽게 굴복하고 지치며 악화되기도 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다[2][52]. 즉 스트레스나 방어자원을 이용하는 가족의 노력, 가족상황평가, 대처유형과 가족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기능적 단위로서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결점중심 접근보다는 강점중심 접근을 말하며, 가족이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3]. 또한 가족을 강점관점으로 실패의 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능에 기여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가족이 보다 적응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의 특성, 자원, 속성을 의미하는 가족자질

이기도 하다[16][34].

Hawley & Dehaan(1996)은 가족들이 현재 및 오래 지속되고 있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적응하고 성공함에 따라 따르는 경로로 묘사하고, McCubbin & McCubbin(1988)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 단위로 보고 가족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혼란가운데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자원으로 정의하였다[11]. 또한, Walsh(1998)는 역경으로부터 더욱 강해지고 자원이 풍부해지도록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하고, 단순히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머무는 것 뿐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관계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가족탄력성의 개념을 확장하였다[38].

가족탄력성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McCubbin & McCubbin(1988)은 가족형태, 가족도식, 가족자원,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지지 등을 가족탄력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22]. 또한, Walsh(1998)의 이론은 스트레스 보다는 가족적응을 보다 강조하고 각 요인들의 구체적, 이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을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고 본다[8][35]. 한편 Walsh(2002)는 가족관계안에서 이해하며 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역동적 가족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요인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으로 구성하였다[11]. 신념체계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과정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치, 확신, 태도, 편견 및 가정 등이 포함되며,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성과 영성으로 구성되며[14], 조직패턴은 가족단위의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위기와 역경을 다루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며, 변화하는 가족 내·외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역할안정성 및 융통성, 연결성,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2][38].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정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정보교환으로서 의사소통의 명확성,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로 구성된다[22].

이러한 가족탄력성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재연(2010)은 가족탄력성이 청소년 자살을 완화시키는 부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21], 김옥선·오윤자·최명구(2005)는 가족탄력성과 자존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내 가족탄력성과 자존감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9].

또한 서하진·김정옥(2009)은 가족탄력성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행복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25], 김민경(2011)은 자아탄력성과 자살생각과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도 낮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낙관성과 호기심을 의미하며, 원만한 대인관계가 전개되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자살생각도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6].

김민경(2012)은 가족탄력성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은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편안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문제해결과 대처 능력, 자존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을 얻는다고 하였다[7].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은 G지역의 남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에 대한 불안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극단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 응답의 정확성과 높은 회수율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전 연구목적을 밝힌 후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

다. 조사는 2013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이루어졌으며, 총 수거된 설문지는 310부로 불성실 답변을 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30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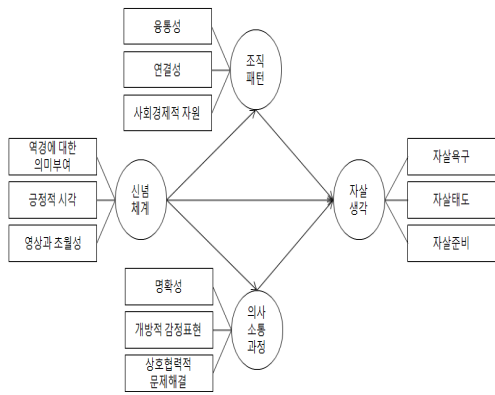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 1. 신념체계는 조직패턴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신념체계는 의사소통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 신념체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4. 조직패턴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5. 의사소통과정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 연구척도, 신뢰도,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ixbey (2005)가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에 맞게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를 활용하였다[54][55]. 본 척도는 김은지(2007)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12],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송순인(2009), 이현희(201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7][37]. 이 척도는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맞게 3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신념체계는 역

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조직패턴은 유연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의사소통과정은 명확성,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로 모두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각각의 요인이 .600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 내용은 모두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다. 본 척도의 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는 [표 1][표 2]와 같다.

표 1. 가족탄력성 척도(FRAS) 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하위 영역	요인	문항	제거된 항목	분석된 항목	신뢰도 계수
신념 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3	0	3	.691
	긍정적 시각	4	0	4	.809
	영성과 초월성	3	0	3	.904
조직 패턴	융통성	3	0	3	.675
	연결성	4	0	4	.744
	사회경제적자원	3	0	3	.719
의사 소통 과정	명확성	3	0	3	.768
	개방적 감정표현	4	2	2	.684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3	0	3	.808
총 계		30	2	28	

표 2. 자살생각 척도 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하위척도	문항	제거된항목	분석된 항목	신뢰도계수
자살욕구	4	0	4	.856
자살태도	4	0	4	.698
자살준비	2	0	2	.301
총계	10	0	10	

자살생각 측정도구는 Beck 등(1979)의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를 박광배·신민섭·오경자·김중술 (1990)이 자기 보고형으로 변형시켰으며[18], 최영임 (2008)은 자살생각을 2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44],

차미영(2010)이 자살생각을 3개 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를 활용하였다[42]. 자살생각은 자살욕구, 자살태도, 자살준비 등 하위척도로 17문항이 3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맞게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자살준비는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향후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현실에 대한 인지적인 숙지에 의한 것 보다는 정서적, 감정적 동요에 의해 즉, 일시적인 충동감, 분노감, 자기조절 능력 저하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어[29] 미리 자살을 준비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직각회전기법인 베리맥스(Varimax) 기법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KMO Bartlett의 검정을 하여 요인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브랜드의 요인들이 고유값의 허용치인 1.0 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500이상인 것을 활용하였다.

가족탄력성에서 하위영역인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영성과 초월성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 1.810, 누적분산 70.213, KMO .801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념체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신념체계 요인분석

항목	긍정적 시각	영성과 초월성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공통성
신념체계5	.870	.003	.094	.766
신념체계4	.808	-.033	.256	.720
신념체계6	.696	.038	.419	.662
신념체계7	.633	.110	.287	.495
신념체계9	.053	.953	-.002	.911
신념체계8	.034	.910	.011	.829
신념체계10	.004	.880	.047	.777
신념체계3	.179	.005	.855	.763
신념체계1	.331	.012	.647	.529
신념체계2	.493	.048	.570	.569
고유값	2.683	2.528	1.810	KMO=.801
분산	26.832	25.282	18.099	$\chi^2=1428.455$
누적분산	26.832	52.114	70.213	df=45

가족탄력성에서 하위영역인 조직패턴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 1.639, 누적분산 59.401, KMO .785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패턴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직패턴 요인분석

항목	연결성	사회경제적자원	융통성	공통성
조직패턴7	.793	.047	.033	.632
조직패턴5	.782	-.027	.166	.640
조직패턴6	.658	.192	.133	.488
조직패턴4	.655	.231	.240	.541
조직패턴8	.079	.839	-.002	.710
조직패턴10	.077	.794	.159	.662
조직패턴9	.143	.692	.153	.523
조직패턴2	-.045	.155	.822	.702
조직패턴3	.285	.216	.646	.545
조직패턴1	.319	-.027	.627	.496
고유값	2.322	1.979	1.639	KMO=.785
분산	23.219	19.792	16.389	$\chi^2=679.875$
누적분산	23.219	43.011	59.401	df=45

가족탄력성에서 하위영역인 의사소통과정은 명확성,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개방적 감정표현에서 2문항이 제거되었다. 고유값 1.558, 누적분산 72.211, KMO .881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정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의사소통과정 요인분석

항목	명확성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개방적 감정표현	공통성
의사소통과정2	.792	.339	.049	.744
의사소통과정1	.730	.101	.332	.653
의사소통과정3	.685	.287	.397	.709
의사소통과정10	.162	.843	.219	.784
의사소통과정9	.252	.808	.272	.791
의사소통과정8	.516	.622	.133	.670
의사소통과정4	.111	.309	.798	.744
의사소통과정5	.386	.147	.715	.681
고유값	2.145	2.075	1.558	KMO=.881
분산	26.808	25.931	19.471	$\chi^2=986.479$
누적분산	26.808	52.740	72.211	df=28

자살생각은 자살욕구, 자살태도, 자살준비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 1.269, 누적분산 63.336, KMO .852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살생각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살생각 요인분석

항목	자살욕구	자살태도	자살준비	공통성
자살생각2	.847	.267	-.023	.789
자살생각3	.837	.185	.181	.767
자살생각4	.801	.241	.202	.741
자살생각1	.754	.224	.123	.634
자살생각5	.196	.740	.096	.595
자살생각7	.197	.737	-.161	.607
자살생각6	.151	.726	.197	.589
자살생각8	.225	.577	.165	.411
자살생각9	.013	.132	.879	.791
자살생각10	.319	.043	.552	.409
고유값	2.881	2.184	1.269	KMO=.852
분산	28.808	21.841	12.686	$\chi^2=1030.429$
누적분산	28.808	50.649	63.336	df=45

#### IV. 연구결과

##### 1. 기초자료 분석

본 연구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응답자는 모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총 308명이며, 응답자의 종교는 무교가 189명으로 61.4%, 개신교가 60명으로 19.5%, 천주교가 31명으로 10.1%, 불교가 25명으로 8.1%, 기타 3명으로 1.0%를 차지하였다.

표 7. 응답자의 종교

구분	빈도	퍼센트
무교	189	61.4
개신교	60	19.5
천주교	31	10.1
불교	25	8.1
기타	3	1.0
합계	308	100.0

##### 2.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설계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요인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6개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시각과 연결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영성과 초월성 요인과 자살욕구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적으로 해당조건에 만족하게 나타났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1										
2.긍정적 시각	.684**	1									
3.영성과 초월성	.065	.081	1								
4.응통성	.522**	.472**	.123*	1							
5.연결성	.616**	.730**	.113*	.417**	1						
6.사회경제적 자원	.370**	.356**	.060	.298**	.263**	1					
7.명확성	.545**	.644**	.121*	.403**	.718**	.213**	1				
8.개방적감정 표현	.416**	.504**	.137*	.279**	.660**	.182**	.564**	1			
9.상호협력적 문제해결	.553**	.684**	.166	.370**	.621**	.218**	.640**	.543**	1		
10.자살욕구	-.183**	-.176**	.009**	-.116*	-.228**	-.064	-.298**	-.200**	-.202**	1	
11.자살태도	-.207**	-.249**	-.062	-.074	-.284**	-.087	-.322**	-.256**	-.287**	.522**	1
m	2.91	3.06	1.83	2.90	3.00	3.10	3.02	2.88	2.73	1.52	1.36
sd	0.526	0.501	0.912	0.500	0.512	0.511	0.593	0.617	0.644	0.578	0.417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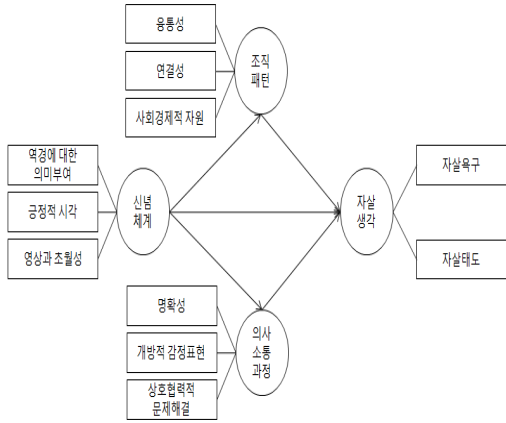


그림 2. 자살준비가 생략된 연구모형

전체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chi^2$  통계량,  $\chi^2$ 에 대한 유의확률, 기초적합지수(GFI), 수정적합지수(AGFI), 평균자승의 잔차(RMR) 등의 기준을 이용한 결과  $\chi^2=196.514$ ,  $df=39$ ,  $p=.000$ ,  $GFI=.937$ ,  $AGFI=.894$ ,  $RMR=.014$ ,  $NFI=.927$ 의 지수로 나타났다. RESEA는 .05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08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9. 모형의 적합도

구분	$\chi^2(p)$	df	RMSEA	TLI (NNFI)	GFI	CFI
연구모형	196.514 (.000)	39	.075	.932	.937	.952
수용기준	$p < .05$		.05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1개요인 모두가 유의확률  $p < .05$ 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0]와 같다.

### 3. 모형의 검증

연구모형 검증 결과, 조직패턴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무의미하게 나타나, 조직패턴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수정을 통해 최종모형을 채택하기 위해 헤이우드 케이스 제약방법과 음오차분산 발생에 대해 MLI를 활용하여 수정모형 및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음오차분산이 발생하여 적합모형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정모형1과 수정모형2를 비교하여 모형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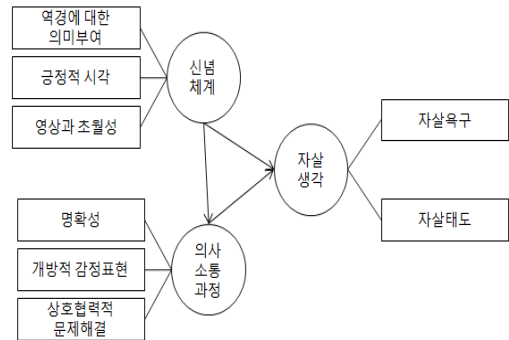


그림 3. 수정 연구모형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하위요인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S.E.	C.R.	P
신념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1.000	.757			
	긍정적 시각	1.079	.858	.069	15.635	.000***
	영성과 초월성	.312	.136	.136	2.291	.022*
조직패턴	융통성	1.000	.521			
	연결성	1.595	.811	.163	9.807	.000***
	사회경제적 자원	.696	.355	.123	5.650	.000***
의사소통과정	명확성	1.000	.823			
	개방적 감정표현	.868	.686	.068	12.838	.000***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1.032	.781	.068	15.202	.000***
자살생각	자살욕구	1.000	.658			
	자살태도	.870	.794	.159	5.491	.000***

\*  $p < .05$ , \*\*  $p < .01$ , \*\*\*  $p < .001$



그 결과로  $\Delta\chi^2=37.477-38.812=-1.335$   $\Delta d.f=18-17=1$ 로  $\Delta\chi^2=-1.335$ 과  $\Delta d.f=1$ 로 수정모형2가 최종적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chi^2(p)$	d.f	Q	GFI	NFI	RMR	비고
수용 기준	(0.05이하)		4.0 이하	0.9 이상	0.9 이상	0.05 이하	
연구 모형	19.908	17	1.171	.984	.978	.013	음오차 분산발생
수정 모형1	37.477	18	2.082	.970	.959	.019	헤이우드 케이스제약방법
수정 모형2	38.812	17	1.930	.974	.964	.017	M.I.
1과2 비교	-1.335	1	.152				

이상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수정모형에 따라 주요 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신념체계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 직접적인 효과는 무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신념체계에서 의사소통과정으로 가는 경로와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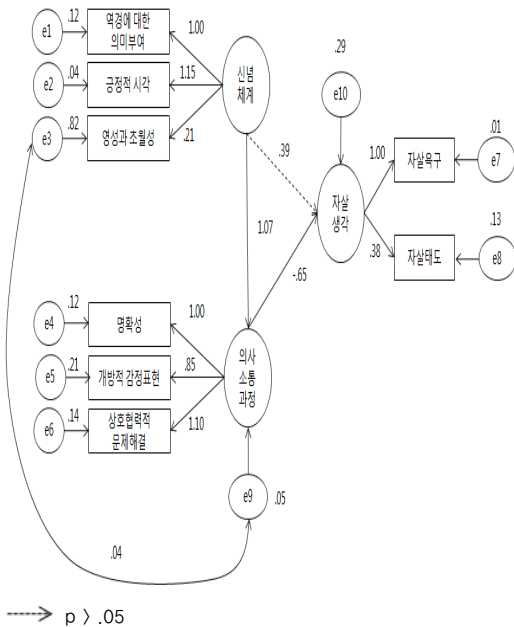


그림 4. 최종 연구모형의 계수값

가설 검증의 결과는, 신념체계는 의사소통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사소통과정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신념체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2. 수정연구모형의 가설검증 분석결과

가설경로	Estimate	S.E.	C.R.	p
신념체계 → 의사소통과정	1.072	.087	12.374	.000***
의사소통과정 → 자살생각	-.649	.245	-2.647	.008**
신념체계 → 자살생각	.389	.291	1.340	.180

\* p < .05, \*\* p < .01, \*\*\* p < .001

구조방정식에서는 요인간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인과효과는 통계적( $p < .1$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념체계가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직간접효과 분석결과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과효과	p
신념체계 → 의사소통과정	1.072	-	1.072	-
의사소통과정 → 자살생각	-.649	-	-.649	-
신념체계 → 자살생각	.389	-.695	-.306	.078

^ p < .1

## V. 결론

###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그중 총 310부를 회수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08부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통한 빈도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항목과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모형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를 통한 가설 검증에 앞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헤이우드 케이스제약방법과 MI. 방식을 통한 수정모형을 완성하였으며, 요인간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신념체계는 의사소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기능적임을 의미하는데 특히 가족분위기가 좋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이 긍정적인수록, 부모-자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협력하여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가족탄력성의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만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신념체계와 의사소통 간 직접적인 여부는 선행연구에서 찾기 어려운 변인이었다.

둘째, 의사소통과정은 자살생각에 통계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역동적인 시기로 가정 내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가족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모와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서보아(2012), 이근영 외(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23][31].

##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으로서 먼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념체계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념은 가족이 문제의 해결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으로 탄력적인 신념체계를 구성하도록 원조하는 일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신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족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도록 도우며, 서로 간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다면 청소년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 직면한 문제해결과 함께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명령하기보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개방적 감정표현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감과 친밀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하며, 이는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따뜻하고 애정적인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의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가족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따를 수 있는 규칙이나 활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는 긍정적인 생각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통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켜 올바른 인간으로서 성장 발달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족탄력성 요인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는 조사대상 선정과 설문조사의 용이성 측면에서 편의표집을 채택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요인으로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외 다른 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살생각을 감소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세원, 송인한,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간 관계에서 인지왜곡이 가지는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67-92, 2011.
- [2] 기화, *만성질환 아동 가족탄력성 모형검증; 백혈병 환아 가족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 김경신, 박주연,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3-46, 2012.
- [4] 김기환, 전명희, “청소년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제1호, pp.127-152, 2000.
- [5] 김미옥,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8호, 2001.
- [6] 김민경,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제29권, 2011.
- [7] 김민경,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모형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1호, pp.61-83, 2012.
- [8] 김안자,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9]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3호, pp.761-777, 2005.
- [10] 김연수,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59-90, 2010.
- [11] 김은한, 유서구, “가족탄력성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제35권, 제3호, pp.145-171, 2012.
- [12] 김은지, *정신분열환자의 개인·사회적기능과 가족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3] 김인숙,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죽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4] 김진희,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권, 제3호, pp.85-107, 2011.
- [15] 김희윤, 박정윤,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69-192, 2011.
- [16] 나금실, 김희재, 최송식,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pp.73-101, 2010.
- [17] 문동규, 김영희,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기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59-83, 2012.
- [18] 박광배, 신민섭, 오경자, 김중술,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임상, 제9권, pp.1-19, 1990.
- [19] 박병금, *청소녀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20] 박재연,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1] 박재연,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경험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간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제28권, 제4호, pp.61-92, 2010.
- [22] 박지현, 김태현,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1호, pp.229-257, 2011.
- [23] 서보아, *고등학생의 모 애착이 자살욕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서에스터, *부모 및 친구관계 정서적 친밀도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5] 서하진, 김정옥,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3호, pp.141-178, 2009.
- [26] 송인환, 권세원, 정은혜,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pp.199-223, 2011.
- [27] 송순인,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간의 가족탄력성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28] 심미영, 김교현,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2호, pp.313-325, 2005.
- [29] 우채영, 김관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간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219-240, 2011.
- [30] 윤명숙, 조혜정, “청소년음주행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제13권, 제3호, pp.43-66, 2011.
- [31] 이근영, 최수찬, 공정성,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pp.83-107, 2011.
- [32] 이선희, 전중철,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2012.
- [33] 이영서, *사별노인의 생태체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별 및 자녀동거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4] 이은희, 이용한,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9권, pp.195-216, 2008.
- [35] 이은희, *결혼이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6] 이정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7] 이현희,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구성 및 평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8] 전혜정, 안연선,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3호, pp.155-174, 2010.
- [39] 정여주, 정영숙,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0권, 제1호, pp.67-88, 2007.
- [40]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호, pp.107-126, 2003.
- [41] 조준범, “청소년 자녀의 부·모 신체학대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제28권, 2011.
- [42] 차미영,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3] 통계청, *청소년통계조사*, 2012.
- [44] 최영임,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45]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자살예방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2007.
- [46] <http://www.kostat.go.kr/> 2011.
- [47] A. T. Beck, M. Kovacs, and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7, No.2, pp.343-352, 1979.
- [48]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1980.
- [49] K. Glaser, “Psychopathologic ns in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therapy*, Vol.23,

pp.131-143, 1981.

- [50] M. S. Gould, T. Greeberg, D. M. Velting, and D. Shaffer,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 No.4, pp.386-405, 2003.
- [51] P. M. Lewinsohn, P. Rhode, J. R. Seeley, and C. L. Baldwin,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0, No.4, pp.427-434, 2001.
- [52] H. McCubbin and M. McCubbin,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Vol.37, No.3, pp.247-264, 1998.
- [53] J. M. Patterson and A. W. Garwick, "Theoretical Linkages : family meaning and sense of coherence In H. McCubbin, E. Thompson, A. Thompson, & J. Fromer (EDs), *Sense of coherence and resilienceecy :Stress, coping, and health*. Madison: Center for Excellence in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 1994.
- [54] M. T, Sixbey,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constucts," University of Florida, 2005.
- [55] Walsh Froma.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 The Guilford Press, 1998.
- [56] M. M. Weissman, S. Wolk, and R. B, Goldstein,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ine Association*, Vol.281, pp.1707-1713, 1999.

저 자 소 개

서 신 자(Shin-Ja Seo)

정회원



- 2000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유아교육학사)
- 2005년 2월 : 남부대학교(사회복지학 석사)
- 2012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0년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외래 교수  
<관심분야> : 가족, 다문화, 청소년

정 민 숙(Min-Suk Chung)

정회원



- 1976년 2월 : 조선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1998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 사회복지실천, 여성